

방금 소개 받은 기호 1번 김영오입니다.

서울공대에서의 25년 간, 제가 이런 무게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학장예비후보라는 엄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330명 서울공대 교수님을 거의 모두 두세번씩 뵈었구요, 그 기록이 3000 여줄에 달합니다. 서울대는 본부 규제가 너무 썰서 가망이 없다, 카이스트는 펄펄 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서울공대의 자긍심은 어디로 갔나 등등 거대담론의 위기부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 십개의 문제들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계획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바쁜 시간 짜내어 제게 말씀들을 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음에 틀림없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청사진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청사진 이행의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기록들을 분석해보니깐, 그 교집합으로 ‘수월’, ‘융합’, 그리고 ‘창의’, 즉 Excellence, Integration, and Creativity 이렇게 3개의 키워드가 도출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울공대의 비전을 ‘수·융·창(修·融·創) 학문공동체’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Catchphrase는 변화의 ‘시작’으로 잡았는데요, 서울공대의 ‘변화’라는 단어를 넘어 정체의 관성을 깨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성과목표, ‘2배의 발전기금, 3배의 복지, 5배의 교류, 10배의 홍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추진전략이 필요한데요, 저는 취임 즉시 실행, 정부/산업체와의 적극 협력, 그리고 우리 내부의 대화 진작을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전략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마 이런 것이겠죠. 많은 교수님들이 서울공대의 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분노의 표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민단체의 방식이죠.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취임 즉시 해보고 싶은 것은, ‘R&D 예산 일괄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책인데요, 무너진 공학인의 자긍심과 위상 살리기가 되겠죠. 대통령 과학기술수석실로,

교육부 대학정책실로, 저는 취임 즉시 뛰어다니기 시작하려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또 많은 교수님들이 서울공대 내부의, 대화와 토론 부재를 언급하셨습니다. 첨단융합학부에 참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해동첨단공학관 건물은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거야? 앗, 419탑 부지에 제2 학생회관이 들어온다고? 지난 1년반 저는 평교수로서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코로나 침체로 치부하기엔, 담론의 실종이 너무나 길었죠. 그야말로 혁신을 위한 논의가 멈춰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단 지성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그런 속의 과정을 정기적으로 거치겠습니다. 누구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토론회’로 서울공대 교수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제 발전계획서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전계획서 설명]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15개의 추진계획은, 실행이 가능한 공약만 담았구요, 이를 약속하기 위해서 저는, ‘발전계획 이행평가 위원회’를 통해 매 학기 평가 받고자 합니다. 오히려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공대 교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연초에는 대만과 러시아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연말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만 지진으로 반도체 시장이 불안합니다. 즉, 이른바 Geo-politics와 Geo-economics의 연쇄작용이 공급 망 안보, 기후 위기 전략, 국제 시장 질서 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ew Normal. 우리에게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먼저 준비하고 응전해야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2년과 똑같은 서울공대의 리더십으로는 응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공주모, 즉 공대 주니어 교수모임을 발의해서 젊은 교수들의 목소리를 당시 학장님께 전달하였던 기억들, 본부 보직을 하면서 복잡한 학내 이슈들을 소통하였던 시간들, ‘과실연’ 상임대표로 성명서를 내고 주요 일간지 1면 톱으로 게재된 경험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폭 넓은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가 제게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영오는 ‘시 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신이 났었습니다. 서울대형 RC Living & Learning, 글로벌사회공헌단, 스포츠진흥원, 문화예술원, 건강주간, 예술주간, 모바일 S-card가 그렇게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서울공대에서 새로운 혁신을 ‘시 작’하고 싶습니다. 서울공대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내기에 앞서 저는,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치뤄지는 선거인만큼, 선거운동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기호 1번 김영오에게 다시 한번 많은 지지를 호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